

문학과 철학

박 이 문

문학과 철학은 다같이 (구두적 혹은 문자적) 언어적 텍스트를 지칭한다. 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문학’과 ‘철학’이라는 개념들의 차이를 밝히는 철학적 문제이며, 이러한 개념들을 밝히는 문제는 어떤 텍스트를 ‘문학’이라는 범부로 분류하고, 어떤 텍스트를 ‘철학’이라는 범주 속에 분류하는 근거의 차이를 해명하는 데 있다.

인류가 언어를 사용한 것 즉 텍스트를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지만, 원초적 생활세계 속에서는 ‘문학’과 ‘철학’이라는 텍스트의 범주적 구별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화사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먼저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뒤늦게 ‘문학’이라는 텍스트 개념과 ‘철학’이라는 텍스트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텍스트를 ‘역사’, ‘종교’, ‘과학’ 등 다양한 텍스트를 범주들과 더불어 ‘문학’과 ‘철학’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게 되었다.

가령 ‘역사’와 ‘과학’, ‘문학’과 ‘역사’, ‘철학’과 ‘과학’ 간에는 범주적 구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데 비해서 각별히 ‘문학’과 ‘철학’의 범주적 구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학’의 범주에 구별되는 텍스트와 ‘철학’의 범주 속에 구별되는 텍스트의 구별이 다른 종류의 텍스트들, 가령 과학 텍스트와 역사 텍스트간이나, 종교 텍스트와 역사 텍스트간의 구별에 비추어 그 속성이 훨씬 애매 모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포스트모던/해체주의자들에 의해서 문학과 철학의 차별 자체가 숫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과 철학의 구별은 착각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구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텍스트를 ‘문학’이라고 부르고 다른 텍스트를 ‘철학’이라고 분류한다면 과연 ‘문학’과 ‘철학’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며, 각기 다른 의미의 차별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더듬기 위해서 나는

첫째, 문학과 철학의 차이의 긍정과 그에 대한 전통적 근거와 그것의 비타당성을 검토하고,
둘째, 문학과 철학의 차이를 숫제 부정하는 해체주의적 근거와 그것의 비타당성을 분석하고,
셋째, ‘양상론’을 도입하여 문학과 철학의 개념적 구별의 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문학, 더 일반적으로 예술의 보편적 기능과 그 의미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서:

박이문, 『시와 과학』 (일조각, 1995)

---,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3)

---, ‘철학과 문학’, ‘철학적 허구와 문학적 진실’, ‘시와사유’ in: 박이문, 『철학전후』 (문학과지성사, 1993)

---, ‘시와철학’ in: 박이문, 『문학과 철학』 (민음사, 1995)

---, ‘문학은 철학적이어야 하는가?’, ‘문학의 비문학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 in: 박이문, 『자연, 인간, 언어』 (철학과 현실사, 1998)

---, ‘The Function of Fiction’, ‘The Artistic, the Aesthetic and the Function of Art: What is Artwork supposed to be appreciated for’ in: Ynhui Park, *Reality, Rationality and Valu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8)

---, ‘The Poetic Intention: a Sartrean Hypothesis’, ‘The Ontological Modality of Artwork’ in: Ynhui Park, *Man, Language and Po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9)